

전후 일본의 시민과 역사의식

- '동아시아의 고대를 생각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이성시 李成市(와세다대학문학학술원)

일본의 학회에서는 고대의 조일朝日관계사는 야마토大和조정에 의한 한반도남부의 지배(임나任那일본부)를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서 생각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가야伽耶지역의 발굴조사나 새로운 연구에 의해서 고대일본에 의한 한반도남부의 지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고한 지배強固な支配'를 전제로 묘사해온 일본고대사나 대외관계사를 어떻게 재구축하는가 이다. '강고한 지배'는 무엇을 근거로 논해져 왔으며, 재구축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자 한다.

*고대일본에 의한 한반도지배의 역사서술과 논리 - 재구축의 어려움

360년대~ 562년 - 야마토大和조정의 한반도남부의 지배

420년대~ 470년대 - 왜의오왕倭の五王에대한 대송宋(남조南朝)외교 10회, 반도지배의 승인요구

600년~ 614년 - 스이코推古대왕에 의한 대수隋외교 6회, 지배의 탈환을 위한 책봉冊封을 받지 않고 대등외교

630년~ 669년 - 당唐나라에 7회, 반도정세에 대한 대응

*통념으로서의 고대일본에 의한 한반도지배

통일국가의 성립과 외정外征은 항상 보조를 맞춘다. 예를 들어, 7세기 야마토大和의 성립과 임나任那진공, 히데요시秀吉의 국가통일과 조선파병, 19세기 메이지明治국민국가의 성립과 세이칸론征韓論등이 있다. 즉, <중심>의 성립이 <내부>를 <주변>화 하여, 시스템 내부에 <외부>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메커니즘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지배의 통념형성의 기원

『歴史地理 臨時増刊 朝鮮号』(明治43年11月3日、三省堂書店) 日本歴史地理学会編

→ 집필자 22명 중 13명이 고대의 조선지배에 대해 언급

*왜 고대사인가?

일본고대사에는 항상 천황제가 붙어 다닌다. 반대로 말하자면 천황제와 관련해서 고대사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황제가 보편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산물임을 증명하는 것이 천황제를 대상화하는 것이다.